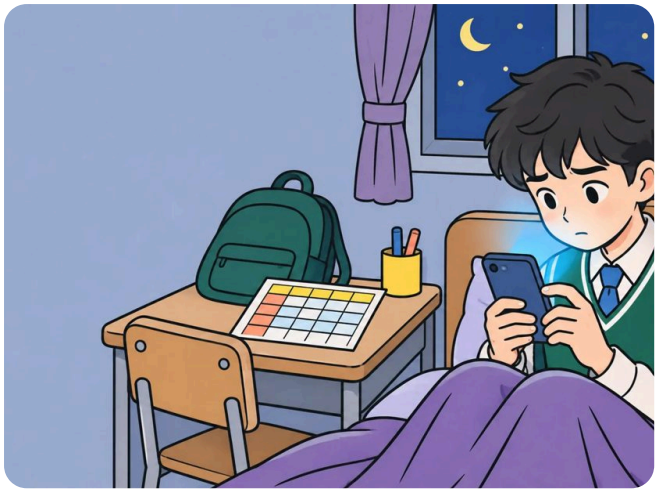


이야기 카드 1

‘ㅋㅋ’가 쌓이는 단톡방

밤 11시, 반 단톡방에 나연이가 체육 시간에 넘어지는 사진이 올라왔다. 사진 아래로 ‘ㅋㅋ’가 스무 개 넘게 달렸다. 시우는 아직 아무것도 달지 않았다.



이야기 카드 2

이름만 올린 모둠원

과학 탐구 보고서 마감 하루 전. 다섯 명 모둠에서 두 명만 자료를 올렸다. 건우는 “나도 바빴어. 이름만 넣어 줘.”라는 메시지를 남겼다.



이야기 카드 3

늘 혼자 걷는 다인이

이동 수업 때마다 다인이는 맨 뒤에서 혼자 걷는다. 요즘 누군가 다인이 책상에 낙서를 해 둔 것도 다들 봤다. 하지만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.



이야기 카드 4

아무도 안 치우는 교실

점심시간이 끝난 교실 바닥에 과자 봉지와 우유갑이 굴러다닌다. '내가 버린 거 아니야.' 모두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자리에 앉았다.